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 · 기간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국제협력)

국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성폭력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현혜순(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

성폭력 피해 경험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와 불신감을 불러넣게 된다. 현재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른 각도로 돌려놓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대인공포, 순결상실감, 분노, 죄의식, 수치감, 성적혐오감, 우울증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위기개입과 심리상담의 지원체계가 제공된다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려면 적어도 성폭력 피해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이해하고 어떠한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되는가를 상담가는 고민해야 하리라 본다.

다음은 본 필자가 수년간의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경험을 통해 얻은 성폭력 상담의 특성 및 관점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1. 성폭력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1) 여성주의 상담

기존의 상담은 여성내담자의 문제를 개인의 병리현상이나 취약한 기질적 증상으로 진단하며, 남성중심 시각에서 그 경험을 해석하고 분석해냄으로써 총체적으로 여성을 통찰하기 힘들게 한다. 내담자의 모든 현실상황을 개인의 책임하에 놓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내담자를 더욱 무력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의 삶을 성차별적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억압당해온 존재임을 이해함으로써 여성이 갖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여성의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려는 관점이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의 맥락속에서 생성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담자의 가치관과 인간관의 문제라 할 수도 있겠다.

사회적 맥락과 억압이 여성주의 상담에서의 중요한 문제제기 부분이다. 상담가가 단지 내담자 자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상담가 역시 자신에 대해 사회적 맥락안에서 자신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 치료에서는 개인간의 관계보다는 전형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전통적 치료접근은 실패하였다고 본다.

사회적 맥락안에는 억압, 사회적 체계, 가족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포함시켜며 이 관계안에있는 권력의 관계를 문제시한다.

인지행동, 인본주의, 정신역동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사회적 맥락이 접목된다면 더 좋은 치료적 접근이 될 것이다.

-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여성적 증상은 건강치 못한 사회심리적 상황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적 증상에 대한 진정한 심리상담 접근방식은 병리학적 측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의 자아회복은 그 속에 들어 있는 건강함과 강인함의 씨앗을 찾는 것이다. 이중 가장 본질적인 씨앗은 사회적으로 마땅한 배출구를 찾지 못했던 억압된 분노이다. 여성의 분노를 표출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분노의 개인적, 정치적 원인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분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분노

모든 인간은 분노심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정당한 분노의 표출은 자기존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분노는 여성에게 중요한 감정이다. 여성으로 길들여지면서 분노를 부정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한 내부적인 분노로 전환하는 것을 배워왔다. 내면화된 분노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울증의 원인은 적절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무의식적인 분노이다.

우울증의 극복은 분노를 힘으로 연결시키고, 여성들간의 공감적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며 우울하지 않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겨누고 있던 분노의 목표를 올바르게 바꾸어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억압된 분노를 자각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상담가는 안전한 환경을 제시하여 준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며 바로 문제 해결의 힘이고 원동력이다. 단, 분노와 폭력은 구별되어야 하며 분노는 감정이며 표현방식에 따라 통제가능하다.

가부장제 하에서 갖는 여성의 분노는 정당하고 건강하다 해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노여워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으로서의 여성에게 분노라는 문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분노라는 여성문제는 그 느낌을 거부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느낌에 올바른 이름을 붙여줄 줄 알게되고 여성의 삶에서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아무리 여성 개인의 분노라 하더라도 그 분노를 야기시키는 제반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종을 조장하는 특정한 구체적 조건에 대한 여성의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경험을 시작하지 않고는 그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러한 변화에 착수하지 않고는 전체여성이 겪는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는다.

우울증(미리엄그린스팬, 1982)

진정한 '자아'를 느낄 수 없다는 것, 자기 정체감 결여- 의존성, 한 인간으로서의 유능함을 느낄수도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으로서 느끼서는 안되는 그 무언은 여성으로 하여금 절망감, 무기력감, 쓸모없음, 공허감, 억압된 분노 등의 감정을 갖게한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들은 여성의 우울증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여성적 무력함이라는 객관적인 사회조건에서 파생되는 정서적 요소들이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세상을 들여다 봐도 자기가 그 속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인이며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사회질서가 경멸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 결국 무력함은 우울증을 키우게 된다.

깊게 뿌리내린 무력함에 대한 확신과 억눌린 분노를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하고 우울증이란 남성통치가 여성에게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 중 하나에 붙인 명칭에 불과하다.

우울증의 가장 간단한 특징은 화를 못내는 무능력으로 자신이 분노를 느끼고 표현할 능력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이는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수동적인 동시에 공격적인 적개심을 특징적으로 갖게된다.

우울증은 여성들에게 보편적 증상으로 제도화된 무력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타인의 무력한 희생물로 파악하게 만든다. 우울증은 절망감이나 좌절감에서 나온 전략으로 비효율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다. 여성의 진정한 권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건전치 못하다. 따라서 관계성을 중시하는 학국사회의 문화적 환경, 가족중심의 사회환경,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책임, 여성들이 본래적으로 중요시하는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한국여성들에게는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여성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특히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증상 더욱 심하다.

의존성

의존성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의존과 독립성 상호조화가 중요하다. 의존성의 중요한 기능은 타인과 관계를 잘 맺도록 하고 내면의 고통이나 연약함의 표현이 자유스럽고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 등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살 때 자신감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면 비록 어떤 관계가 자신의 삶을 파괴해도 홀로 남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이런 성격적 특성을 우리 사회는 마치 여성들의 본래적 기질인양 규정하고 남성들이 여성들의 삶의 권리를 빼앗고 의존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낮은 자존감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성보다 못났다는 메시지 주입

이와 같이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성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성 전체의 문제이며 그 원인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는 모두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신화 탈피 :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근거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남성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시각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은 억압으로 인하여 무기력하게 되었고 남성 문화에서는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여성의 용어로 여성자

신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하도록 돕는다: 관심, 위안, 보살핌, 의지 등을 받고 싶은 정당한 욕구가 있다는 것 깨닫기, 의존과 독립성의 상호공존의 의미.

2. 여성주의 상담의 특징

1) 여성경험의 존중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을 정의하고 남성적 기준으로 가치부여를 해주던 여성성을 여성적 특질로서 이해한다. 따라서 여성의 언어를 통한 경험을 경청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2)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

성공적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감정적 유대가 가장 중요하다.

3) 여성의식 향상과 변화실천

-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하는 억압과 결탁하는 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며 한 개인으로서, 여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
- 내담자의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동기)를 갖도록 도와준다.
- 공감적 이해, 통찰력, 보살핌 등의 여성적 기술 필요하다.

****공감 :** 연민이나 동정과는 반대개념. 연민이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애처롭게 여김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리감을 둔 감정이다. 공감은 유사한 사회적, 개인적 조건 속에서 서로 유대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거리감을 준 감정과는 반대로 상대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감정. 근본적으로 공감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한 형태이다.-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서 진정 받아들이는 것

-Ballou and Ballou(1996b), Gabalac(1984)

(1) 평등한 관계(equalitarian relationship)

치료자는 자신을 내담자의 파트너로 여기며 여성으로서, 상호적 지지, 탐색의 욕구를 가지있게 여긴다. 여성으로서의 한 개인이 경험을 개방은 치료적 과정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권력의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권력의 나눔, 다른 집단의 지배에 대항해서 작업하는 것을 강조한다.

(2) 다원주의(Pluralism)

FT는 차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FT가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MCT의 다양한 영역을 인정한다. 그러나 FT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FT와 MCT의 기본적 철학은 타인을 존중하는 욕구를 자각하는 것이다.

(3) 외부지향적 강조(External emphasis)

FT와 MCT는 현실적 억압적 측면이 말해주는 것을 강조한다.

(4) 지역공동체의 자원이용(Use of Community)

(5) 행동적, 참여적, 상담형식

감정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담자안에 있는 왜곡의 직면, 내담자와 사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6) 정보주기

강한 교육적 요소 즉 내담자가 여성으로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조건화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었나를 이해시킨다.

(7) 개인을 정당화하기

많은 여성은 그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가치를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성장한다 FT는 여성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고유한 잠재력을 특별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정당화 하도록 돕는다.

3.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성문제 접근

- 1) 피해자의 순결상실감에 대한 재조직 : 수치스러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자신감상실, 두려움
- 2) 성관계와 성폭력의 차이
- 3) 성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 ; 성적 자기결정권
- 4) 성폭력 피해의 정당한 귀인: 피해자의 수치감, 자책감 등의 자기비하, 비난 등의 모든 책임 가해자에게 전가.
- 5) 인간으로서의 권리회복

4. 성폭력피해자의 상담과정

▶ 상담가의 자세

- * 성폭력피해는 피해자에게 결함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
- * 피해자로서의 보호받을 권리와 이 사회는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있다
- * 자매애로써 상담에 임한다.
- *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고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범죄이다
- * 순결에 대한 상담가의 입장정리가 분명해야한다.

▶ 상담목표

* Self-Image 구축

자기상은 어린 시절에 확립된다. 그것은 부모나 최초의 양육자의 태도에 의해 인식되고 유지된다.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는 부모나 중요한 타인에게서 받는 거절, 무시, 무관심, 냉대, 비난 등의 부정적인 태도나 메시지에 의해서 어린 피해자의 자기상은 왜곡되고 부정적이 된다. 상담가는 상처받은 피해자 자신의 이미지를 희망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 자신감 불어넣기

성폭력 피해자는 절망감, 무력감, 고립감, 자기비난 등의 감정과 전쟁상태에 있다고 표현함이 많다. 상담가는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당면하고 있는 사소하고 현실적인 간단한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도와준다. 피해자 자신의 관심과 장점을 발견해주고 강화시켜 준다.

* 희망

성폭력 피해자는 삶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상담가는 보람있는 미래에 대한 동기를 심어주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관심과 장점을 찾아보게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과거의 성폭력 피해가 자신의 인생전부가 아니며 단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 후유증 해결

피해자가 피해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과거 피해상황으로 돌아가 기억하기, 재경험하기를 다시 체험하는 단계로서, 상담자와의 안전하고 지지적인 관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재는 그러한 성폭력 피해상황과는 다른 안전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해주는 외상해결단계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이 세상은 삶의 가치가 있고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준다.

* 연대감

피해자들은 고립되고 소외된 생활을 하기 쉽다. 상담가와 피해자의 관계가 고립을 깨는 일차적 단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피해자의 파괴된 인간관계를 상담가와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복원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상호작용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집단상담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 피해자간의 연대감을 갖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 여성끼리의 자매애와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성원

여성주의상담의 실제적 접근

현 해 순¹⁾ (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

1. 여성주의 상담

기존의 상담은 여성내담자의 문제를 개인의 병리현상이나 취약한 기질적 증상으로 진단하며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그 경험을 해석하고 분석해 냄으로써 총체적으로 여성을 통찰하기 힘들며, 내담자의 모든 현실상황을 개인의 책임하에 놓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내담자를 더욱 무력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의 삶을 성차별적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억압당해온 존재임을 이해함으로써 여성이 갖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여성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과 억압이 여성주의 상담에서의 중요한 문제제기 부분이다. 상담가가 단지 내담자 자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상담가 역시 자신에 대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신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 치료에서는 개인간의 관계보다는 전형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전통적 치료접근은 실패하였다고 본다.

사회적 맥락안에는 억압, 사회적 체계, 가족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포함시켜며 이 관계안에는 권력의 관계를 문제시한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한국여성은

- 자아가 강하면 안되고
-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다소곳해야하고
- 의존적이어야 하고
- 논리적. 똑똑하면 안되고
-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야하고
- 자기비하를 하고 겸손해야한다

이로써 한국여성은 한국인의 부정적 측면을 여성에게 더 강조하여 여성에게 심한 소외감과 열등함을 강요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여성적 증상은 건강치 못한 사회심리적 상황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적 증상에 대한 진정한 심리상담 접근방식은 병리학적 측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의 자아회복은 그 속에 들어 있는 건강함과 강인함의 씨앗을 찾는 것이다.

¹ 성폭력 전문상담가, 가정폭력전문상담가, 성폭력.가정폭력상담 전문강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강사
현 서울여대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박사과정(상담심리 전공).

이중 가장 본질적인 씨앗은 사회적으로 마땅한 배출구를 찾지못했던 억압된 분노이다. 여성의 분노를 표출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분노의 개인적, 정치적 원인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분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분노

모든 인간은 분노심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정당한 분노의 표출은 자기존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분노는 여성에게 중요한 감정이다. 여성으로 길들여지면서 분노를 부정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한 내부적인 분노로 전환하는 것을 배워왔다. 내면화된 분노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울증의 원인은 적절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무의식적인 분노이다.

우울증의 극복은 분노를 힘으로 연결시키고, 여성들간의 공감적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며 우울하지 않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겨누고 있던 분노의 목표를 올바르게 바꾸어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억압된 분노를 자각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상담가는 안전한 환경을 제시하여 준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며 바로 문제 해결의 힘이고 원동력이다. 단, 분노와 폭력은 구별되어야 하며 분노는 감정이며 표현방식에 따라 통제가능하다.

분노라는 여성문제는 그 느낌을 거부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느낌에 올바른 이름을 붙여줄 줄 알게되고 여성의 삶에서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아무리 여성 개인의 분노라하더라도 그 분노를 야기시키는 제반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종을 조장하는 특정한 구체적 조건에 대한 여성의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경험을 시작하지 않고는 그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러한 변화에 착수하지 않고는 전체여성이 겪는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는다.

우울증(미리엄그린스펜, 1882)

진정한 '자아'를 느낄 수 없다는 것, 자기 정체감 결여- 의존성, 한 인간으로서의 유능함을 느낄수도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으로서는 느껴서는 안되는 그 무언은 여성으로 하여금 절망감, 무기력감, 쓸모없음, 공허감, 억압된 분노 등의 감정을 갖게한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들은 여성의 우울증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여성적 무력함이라는 객관적인 사회조건에서 파생되는 정서적 요소들이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세상을 들여다 봐도 자기가 그 속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인이며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사회질서가 경멸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 결국 무력함은 우울증을 키우게 된다.

깊게 뿌리내린 무력함에 대한 확신과 억눌린 분노를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 하고 우울증이란 남성통치가 여성에게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 중 하나에 붙인 명칭에 불과하다.

우울증의 가장 간단한 특징은 화를 못내는 무능력으로 자신이 분노를 느끼고 표현할 능력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이는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수동적인 동시에 공격적인 적개심을 특징적으로 갖게된다.

우울증은 여성들에게 보편적 증상으로 제도화된 무력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타인의 무력한 희생물로 파악하게 만든다. 우울증은 절망감이나 좌절감에서 나온 전략으로 비효율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다. 여성의 진정한 권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건전치 못하다. 따라서 관계성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환경, 가족중심의 사회환경,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책임, 여성들이 본래적으로 중요시하는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한국여성들에게는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여성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특히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증상 더욱 심하다.

의존성

의존성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의존과 독립성 상호조화가 중요하다. 의존성의 중요한 기능은 타인과 관계를 잘 맺도록 하고 내면의 고통이나 연약함의 표현이 자유스럽고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 등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살 때 자신감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면 비록 어떤 관계가 자신의 삶을 파괴해도 홀로 남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이런 성격적 특성을 우리 사회는 마치 여성들의 본래적 기질인양 규정하고 남성들이 여성들의 삶의 권리를 빼앗고 의존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낮은 자존감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성보다 못났다는 메시지 주입

이와 같이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성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성 전체의

문제이며 그 원인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는 모두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신화 탈피 :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근거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남성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이 시각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은 억압으로 인하여 무기력하게 되었고 남성 문화에서는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여성의 용어로 여성자신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하도록 돕는다: 관심, 위안, 보살핌, 의지 등을 받고 싶은 정당한 욕구가 있다는 것 깨닫기, 의존과 독립성의 상호공존의 의미.

2. 여성주의 상담의 특징

1) 여성경험의 존중

여성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을 정의하고 남성적 기준으로 가치부여를 해주던 여성성을 여성적 특질로서 이해한다. 따라서 여성의 언어를 통한 경험을 경청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2)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평등의 관계(신뢰와 존중의 관계)

여성의 일반적 종속적 관계를 상담장면을 통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평등한 관계

체험하게 함으로써 상담자와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경험하도록 한다.

성공적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감정적 유대가 가장 중요하다.

3) 여성의식 향상과 변화실천

-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하는 억압과 결탁하는 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며 한 개인으로서, 여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갖고있는 힘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돕는것

- 내담자의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동기)를 갖도록 도와준다.

- 공감적 이해, 통찰력, 보살핌 등의 여성적 기술 필요하다.

Ballou and Ballou(1996b)와 Gabalac(1984)은 여성주의 상담은 다음의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1) 평등한 관계(equalitarian relationship)

상담가는 자신을 내담자의 파트너로 여기며 여성으로서, 상호적 지지, 탐색의 욕구를 가치있게 여긴다. 여성으로서의 한 개인이 경험을 개방은 치료적 과정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권력의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권력의 나눔, 다른 집단의 지배에 대항해서 작업하는 것을 강조한다.

2) 다원주의(Pluralism)

여성주의 상담은 차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여성주의 상담이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다양한 영역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성주의 상담은 권력과 억압의 문제를 중요시 하며 상당히 비판적이다. 여성주의 상담의 기본적 철학은 타인을 존중하는 욕구를 자각하는 것이다.

3) 외부지향적 강조(External emphasis)

여성주의 상담은 현실적 억압적 측면을 강조한다.

4) 지역공동체의 자원이용(Use of Community)

5) 행동적, 참여적, 상담형식

감정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담자안에 있는 왜곡의 직면, 내담자와 사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6) 정보주기

강한 교육적 요소 즉 내담자가 여성으로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조건화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었나를 이해시킨다.

7) 개인을 정당화하기

많은 여성은 그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가치를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성장한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고유한 잠재력을 특별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정당화 하도록 돕는다.

3.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문제 접근

성폭력

- 1) 피해자의 순결상실감에 대한 재조직
- 2) 성관계와 성폭력의 차이
- 3) 성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
- 4) 피해자의 수치감, 자책감 등의 자기비하, 비난 등의 모든 책임 가해자에게 전가.
- 5) 인간으로서의 권리회복

구타

- 1) 가부장제하에서의 사회맥락적 개인심리적 입장에서 접근
권력의 불평등의 문제
- 2) 인권침해의 범죄행위
- 3) 여성의 분노, 무기력, 우울증, 자아상실의 문제 접근
- 4) 자존감, 독립심, 자신감 회복

의도

- 1) 가부장제하에서의 일부일처제
- 2)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성윤리
- 3) 피해여성으로서의 감정들
- 4) 여성의 선택결정권 : 경제적 독립,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등의 대안 모색

4. 피해 후유증의 회복

- 분노, 우울증, 죄책감, 무기력 등을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다루어준다.
- 우리 사회가 이룩지어준 왜곡된 사고는 개인의 비합리적 사고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안에서 여성에게 이룩지어진 가부장적 왜곡과 편견의 부산물이란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 자신감을 심어준다
- 자존감회복을 도와준다.

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 상담과정 2)

- * 피해자의 두려움과 망설임 고려
- * 피해자의 양가감정 인정(도움요청/회피)
- * 수치심, 창피함 수용
- * 피해후유증에 대한 수용과 정상적 반응이라는 격려와 지지, 강화

- 1) 라포형성 및 신뢰관계 형성(안심시키기, 격려하기)
 - 2) 성폭력 피해의 경험 드러내기
 - 3) 억압된 감정다루기: 성폭력 피해감정의 표현 : 사고와 감정의 구체화/ 문단요약
 - 4) 죄책감, 수치감, 분노 등을 가해자에게 돌려주기
 - 5) 사회적 대처기술 익히기
 - 6) 피해자의 자기통제력회복
 - 7)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설계 그리기
- ** 내담자와의 속도 맞추기 (피해자 따라가기)

상담가는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친밀감, 신뢰감을 형성한 후 에
 상담에 들어간다.

상담가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단기과정이 아니라 장기적 과정
 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준다.

(1) 1단계 : 상담자와 피해자와의 동맹관계 형성

피해자에게 안전한 분위기 조성과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보장, 친밀감, 신뢰감 형성에 초점을 둔다. 피해자가 치료자를 믿어도 좋다는 느낌을 갖게되면 상담자는 피해자가 그 동안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와 자신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피해행위에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2단계 : 위기의 단계

성폭력의 상처가 클수록 피해사실을 직면하기가 어렵다. 그 사건에 연상된 각종의 부정적 감정반응 때문에 피해자가 불안한 감정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정당화 시켜준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주는 단계이다.

(3) 3단계 : 성폭력 피해경험 장면의 기억재생 단계

피해자가 상담자와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조심스럽게 피해장면을 생생하게 연상하는 단계로 서서히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상처받은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안전하게 느끼는 분위기 가운데서 그 사건을 다시 재기억하고 그 감정을 느끼며 순환시킬 때 후유증을 극복할 수가 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은 여러 형태를 띠는데, 꿈, 악몽, 과거에 대한 갑작스러운 연상, 조각나 기억들, 사고의 왜곡 또는 중성적인 자극에 대한 과잉반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억들을 종이에 생각나는 대로 써 보게 한다든지 차라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이 단계에서 조심할 점은 피해자의 페이스를 따라 가야지 상담가가 너무 성급하게 해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정서를 고려하여 너무 성급하지 않도록 한다.

(4) 4단계 : 성폭력이 실지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오랫동안 억압했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의식수준이 떠올라 올 때도 피해여성들은 그것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 심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해리를 통해서 자신을 지탱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가혹한 성폭력이 현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기의 기억을 믿고 성폭력을 당한 것이 사실이며 그 폭행을 당한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행을 해리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 수용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5) 5단계 : 피해감정을 표현하는 단계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피해 당한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하며 주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기억을 다시 살려 볼 때, 그들은 묻어두었던 분노감정이 화살처럼 폭발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상실 당한 것에 대한 슬픔의 감정이 강렬해질 수도 있다. 이때 상담자는 이러한 쌓인 감정의 분출구를 이 단계에서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때 다양한 기법들이 동원되는데 편지쓰기, 빈 의자 기법, 분노와 슬픔 그리기, 피해자를 가장한 고무풍선이나 모형 방망이로 치기 등의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도록 한다.

▲ 배신감 다루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두어야 할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한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피해자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이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을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연대감을 느끼도록 한다.

▲ 분노 다루기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한 가해자에 대한 분노, 자신의 피해를 은폐하고 침묵을 강요한 어머니, 자신을 비난하고 가해자와의 공범을 주장하는 가족에 대한 분노, 증오심, 적개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분노의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자신을 위한 건강한 방식으로의 분노표출을 할 수 있도록 편지쓰기,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낭송하기, 역할극하기, 빈 의자 기법활용.

▲ 두려움과 불안 다루기

자신의 피해사실 노출로 인한 가정의 붕괴, 가족의 비난, 불화, 성관계에 대한 불안, 이성교제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이성이나 남편에 대한 피해사실 노출에 대한 불안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담자는 솔직하게 현실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죄책감 다루기

피해자는 어린 시절 가해자의 행위를 지속시키게 한 것이 자신이 막지 못하여 일어났다고 자책한다. 또한 자신의 폭로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났다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 또한 가해자의 애정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못한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상담자는 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를 피해자가 깨닫도록 하여 성폭력은 가해자의 책임이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여 피해자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가해자의 성적 행위의 의미는 사랑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연령에 맞게 이해시킨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이야

기를 나눈다.

▲ 순결상실감 다루기

성폭력과 건강한 성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폭력은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피해의 문제임을 깨닫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성과 순결에 대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 고립감 해소

피해자 자신은 가족간에도 철저히 고립되어 있어 가해자가 외부활동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므로 같은 또래의 친구와 신뢰를 가지고 원만히 맺지 못하며 사회성도 낮아진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타인과의 신뢰, 지지, 이해, 수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6) 6단계 : 피해자의 수치감 죄책감 등을 가해자에게 돌려주기

성폭력 피해자는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인하여, 자신이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여성으로서 가치를 잃었다고 자신을 수치스러워 한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가 유발하여 일어났거나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피해당시 어린아이로서 오는 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 즉 가해자는 성폭력의 책임자이고, 피해자가 갖고 있는 수치심, 죄책감들을 가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피해당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자세히 물어주고, 신체적으로 느끼는데 감정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 정확한 감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7) 7단계 : 애도와 슬픔의 단계

피해자가 그 동안 쌓아온 감정에 접근하여 새롭게 느끼고 자기의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했다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하는 생각과 지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성폭력때문에 상실 당했다는 데서 오는 슬픔과 우울함,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의 감정상태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8) 8단계 : 왜곡된 신념이나 인지의 재구성 단계

이 과정에서는 그 동안 성폭력 피해자에서 오는 왜곡된 사고나 생각을 확인하고 그 생각에 도전하고 대안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이다. 피해여성들은 '순결을 잃었기에 내 몸은 더럽혀졌다',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학대당했기에 회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세상 모두에게 내 피해가 알려져서 창피하다', '모든 남자는 혐오스럽다', 등의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그 동안 상담과정을 통해서 피해자 나름대로 가지는 역기능적인 사고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왜곡된 사고를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9단계 : 성폭력 사건의 공개 및 가해자 대면단계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원한다면 상담과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준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편지쓰기, 집단상담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10) 10단계 :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결심과 행동 변화 단계

상담자는 피해자의 피해경험과 현재 역기능적인 행동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파괴적인 방어기제사용을 중지하도록 도와주고, 가족이나 주위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보던지 간에 피해자 자신이 갖는 가치관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주위의 편견이나 부정적 시각에 대응하는 기술을 배워서 생활화하도록 도와준다.

여성상담론의 이해

정 희 진³⁾

* 성(性) 1)sex:성별 2)gender:성별제도 3)sexuality:성활동

*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인식론의 변화 과정

여성억압은 여성의 몸이 근본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등해서 생기므로, 그 차이를 극소화하자, 여성 몸의 '특수성'을 최소화하자 -> 여성의 몸이 실제로 여성 억압을 가져오므로 여성 몸의 억압적 요소를 제거하자 -> 여성의 몸보다는 남성의 몸(예를 들어 공격성)이 여성 억압을 가져오며, 여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토대로 가치관의 전환을 삼자 -> 몸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여성의 억압은 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조건에 있다

* 여성 1)female 2)woman 3)feminist

* 당신, 여성운동가야?(Are you a feminist?)

남자를 얻을 수 없는 여자들 - 왜냐하면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남자를 원하지 않는 여자들 -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들 - 명예남성들, 남성의 특권이 부러운 여자들

(열등감 때문에, 결국 똑같은 이론이다, 기득권 싸움이다)

남자들을 증오하고 그래서 매력 없게 됨으로서 남성들을 '옹징'하려는 여자들

같은 언어도 누구의 관점에서?(여자답게, 남자답게/강한 여성의 이미지)

여성주의는 여성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여성주의는 남성을 증오할 여력이 없다

* 페미니즘 '들'의 의미

* 페미니즘들의 공통점

- 여성은 억압받고 있다는 인식과 문제제기

- 이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의 하다는 각성

- 현재 여성의 지위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실천

* 1기 여성운동 -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자유주의 페미니즘, 맑스주의 페미니즘)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운동, 여성의 사회 참여 등, 그러나 이름 없는 병

* 2기 여성운동 -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급진주의 페미니즘) 여성 의식화 집단(여성주의 상담론), 성폭력, 아내구타 추방운동

* 3기 ? -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3) 경희대 여성학 강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 저자/『한국여성인권운동사』 공저

인간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든다.

(성차별적 사회는 성차에 관심을 갖는다)

여성들간의 차이와 억압의 문제 : 제3세계 여성, 식민지 여성, 동성애 여성

유색 페미니즘, 글로벌 페미니즘

* 여성운동(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급진적'인 믿음이다.

* 여성문제도 결국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아야 對 여성운동은 인권운동이다.

* 여아 낙태 - 여아의 인권 對 남자들 장가 못 간다.

정신대 문제 - 끌려간 여성의 인권 對 민족의 수치, 민족이 더럽혀졌다

성폭력 - 여성의 인권 對 남성의 재산권 침해, 상대 남성을 모욕 공격하는 방법, 부성의 상실

아내 폭력 - 매맞는 아내의 인권 對 가족 유지

음해 절개, 신부 火葬 - 여성 인권 對 우리의 고유 문화다, 사회적 재산 손실

전쟁 중 강간(인종 청소) - 여성의 인권 對 종족 말살, 보존해야

* 성 역할과 폭력

남성의 폭력-여성의 애교

남성의 발산-여성의 수용

* 성 역할 수행 수단으로서 폭력

남성의 '권리와 의무'

여성과의 관계 (유지)방법

* 여성상담론 - 기존의 상담 이론에 대한 도전과 재해석

예) 정신분석, 인본주의, 현실요법

* 상담자의 가치관과 해석 - '객관적'인 것은 없음. 'genderless'한 것은 없음.

*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의 의미 - '개인적인' 심리학과 사회 문제의 만남,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이해

* 환자/내담자/전문가/치료자/의사... therapist = the + rapist

* 몸의 기억 re - cover, dis - cover / discover, recover

* 페미니즘은 여성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대신 힘을 준다.

* 실제 상담에서

1회 상담, 위기 상담, 전화 상담의 한계

누구나 그 상황에 머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떻게 그럴수가!는 결국 내담자 비난)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성에게 힘주기

내담자의 장점과 자원을 빨리 알아내고 표현할 것

경청, 공감, 위로, 칭찬, 정보주기

모든 여성은 예비 내담자 : 내담자와 상담자의 가치관 차이의 긴장과 해결.

대상화하면 안되지만 상담자에겐 힘이 있어야, 공감하는 힘은 상담자의 여유에서

상담자의 빈약한 모델

내담자가 자기 통제 영역을 구분, 한계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합당한 것을 들어오게 하는 지혜, 부당한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 힘

1회 상담에서 직면의 위협성, 직면의 이름으로 비판을 삼가

상담자 주관성의 객관화

상상불안, 예기불안의 감소, 불리한 쪽으로 확대 해석의 감소->안볼 때 머리에서 내려놓는 것

의식향상 : 넘어지지 않으면 짓밟지 않는다. 쓰러질 만한 사람만 넘어 뜨린다.

잘못된 압력을 깨는 것이 아니라 못들어 오게 하는 힘

분노 표출이 곧장 문제해결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현의 효과는 크다

상담자는 남편의 문제를 고칠 수 없다

두 문장 이상은 들리지 않는다.

공감이 적을수록 상담은 한없이 길어진다.

내담자의 원함(want)수준 탐색(심부름 센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왜 내게 중요한 사람인가?

남들로 부터의 인정, 사랑이 왜 내 인생을 좌우하는가?

내가 이렇다고 문제 해결되나?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자신의 느낌을 듣자

내담자의 자기 진술을 막지 않는다

완벽해 질수록, 양보할수록, 좋은 여자가 되려고 할수록...

내가 강해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척도 질문 사용하기

개인의 성실성, 노력만으로는 해결 불가능 그러나 해결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남성)이 문제 해결해야, 고통받는 사람(여성)이 대신 해결할수 없다

자기 표현 훈련

착함이나, 솔직함이나? 왜 솔직함은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는가

배려의 대상에는 자신도 포함된다.

사례를 통해서본 성매매문제 바로보기

정미례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1. 성매매된 여성의 문제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각 지역, 업소마다 약간 상이하지만 여성들은 한달에 휴일이 아예 없거나 하루, 이틀 정도만 공식적으로 쉴 수 있다. 그외의 날에 쉬게 되면 결근비가 20-50만원이 빚으로 떠넘겨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기간에도 일을 해야한다. 또한 남성손님은 대부분 콘돔사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성병, 에이즈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임신도 많이 한다. 물론 중절수술을 하지만 몸조리를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이 악화된다.

매주 실시되는 성병검진 또한 감염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을 총괄적으로 파악 할 수 없다.

2) 익명적 성: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3) 성산업의 먹이 사슬: 성매매와 성산업

* 중간소개업자, 선불금, 업주의 화대갈취등

전국의 모든 역과 터미널 부근등에 있는 직업소개소는 수십에서 수백명의 여성들의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성들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여성을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티켓다방, 림살롱, 방석집, 사창가 등 각 업소마다 1달-3달의 기간으로 계약하는데 소개비로 50만원-200백만원을 챙긴다. 소개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달 단위로 소개비를 받는 곳도 있다.

또한 여성을 직업소개소에 묶어두기 위해 소개소사무장이나 직원 개인에게 빚을 묶어두는 경우도 있다. 어느 소개소 직원은 백명정도의 여성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 매월 5부의 이자와 한달 단위로 몇백만원의 소개료를 챙기고 제주도의 소개소는 여성들을 직접관리하면서 숙소도 운영하고 있었다.

전국의 직업소개소는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여성이 도망을 가면 서로 협조하여 여성을 잡아온다.

직업소개소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간 업주들간의 관계는 각별하다.

여성에게 계약기간 못채우고 도망을 가면 소개소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고 여성을 잡아다 다른 곳으로 매매하고 여성들이 몇일 일을 나가지 않으면 벌로 사창가로 넘기고 모든 경비를 여성이 물도록 한다.

4) 열악한 조건에서 노예노동

업소안에서의 감시와 폭행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험한다. 목욕을 가거나 잠시 가게에 다녀올때도 업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나 폭행에 시달린다. 무엇보다도 도망가다 붙잡혀오면 더 늘어난 빛과 협박등을 감당하거나 견디기 어렵다.

● 성매매의 현실

▶ 빛과 폭력 / 감금, 성매매행위강요등

군산개복동과 대명동 사건에서도 밝혀졌듯이 성매매여성들이 업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업주에게 지고 있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빚이다. 이 빚의 대부분은 직업소개소에서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을 소개하는 과정과 성매매업소간에 여성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개비의 명목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낙태비용, 의료비, 울비(일을 할 수 없는 날 내는 벌금) 등의 명목으로 발생한다. 이들 모두 성매매와 연관한 불법적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갚지 않는 한 여성들은 업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실제 군산에서 발견된 희생자의 일기장에서 확인되듯이 날마다 10여건의 성매매를 해서 벌어들인 돈은 자신은 한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오히려 빚은 늘어나고 있었으며,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만이 적혀있다.

그러나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폭력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거나, 끝까지 찾아내서 섬이나 오지에 팔아버린다 등의 협박을 통해,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이 포주를 도와서 가족들에게 갚으라는 일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된다.

2000년 대구의 한 업소에서 감금위협을 느낀 여성들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차용증을 쓰라고 했던 일도 있다. 결국 성매매여성을 도와주어야 할 경찰도 업주와 한 편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인식과 법률 제도는 이 여성들의 현실적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업소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성매매 여성들은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성매매 집결지에 가보면 건장한 남성을 앞세우고(일명 삼촌) 뒤에서는 포주의 감시를 받으며 여러 명의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여성들은 목욕탕을 가거나, 보건소에서 성병진료를 받거나(매매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하는 것 또한 법의 이중적인 모습이다), 옷을 사러가기 위해 모처럼 외출한 여성들이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발생한 청량리 성매매집결지 여관의 화재사건을 보면 업주가 여관을 여성들의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여성들이 바뀔때마다 계속 그 방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24시간 영업을 하기 위해 여성들이 멀리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자주 와서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3. 법과 제도의 문제점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성매매여성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은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신고할 경우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범죄자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즉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매매피해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매매여성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서비스로부터도 차단 당하게 된다.

또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성매매로 인한 낙인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성매매여성이 처한 열악한 현실의 문제는 결코 성매매여성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관련 법규, 정부 정책, 공권력과

성매매업소 조직의 유착, 이중적인 성적 규범의 문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게다가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매매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을 사회 구조적 모순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이중피해를 입는 여성들

1. 법은 금지하고 있으나 집행의지가 없다.

* 법은 금지이나 행정상 규제

윤락행위등방지법, 직업안정법, 청소년성보호법등

2. 피해자도 가해자도 처벌하는 문제로 피해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3. 금지법을 피해가기 위한 커넥션

성매매 조직과 경찰, 공무원 등 공권력과의 유착 관계

2000년 9월 25일 경찰이 미아리 텍사스의 150여개의 성매매업소 포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조직적인 상납을 받아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상납은 1,2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담당자를 바꿔가면서 일어났고 그 액수도 6-7억이 넘는다는 것으로 그동안 관계기관과 포주들 사이의 유착관계는 이제 심증이 아니라 물적증거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직적인 상납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지만, 그 동안 매춘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일들은 수없이 많았다. 결국 관계기관들은 단속이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업주는 관계기관의 비호속에 성매매 산업을 번창시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영등포 경찰서 경찰들의 상납계 관련 내용을 보면 엄청난 사건(화재참사와 경찰의 유착 및 상납비리)이 계속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여성,시민단체에서는 경찰과 관련기관과의 유착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도 당국은 오히려 유착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성매매 산업을 온존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 대안마련 및 앞으로의 대응

1. 성매매방지법안

주요골자 및 절차(별첨자료)

2. 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

- 각국마다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소개하면

· 필리핀 :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민간단체와 외국의 인권단체들이 지원하는 각종 자립 및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크로드센터의 마이크로 파인넨스사업(소액창업)지원 및 벨렌의 자립 지원교육 등

· 스웨덴 (말모프로젝트)

· 미국 (SAGE, John's school 등) / 캐나다

· 대만 (공창폐지를 위해 레인보우정책실시) 등

- 현재 새움터 사업(탈성매매사업과 쉼터운영등)과 한소리회(13개 연합단체)등의 활동

- 본 센터에서 생계지원사업시작

▶ 상담의 실제

1. 티켓다방

처음에는 선불금이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배달만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종일 차배달을 해도 6:4로 계산을(재료비 포함) 보기 때문에 숙박비, 지각비, 울비등을 물고 나면 남는게 없다. 결국 선불금을 더 받아야 하고 빛이 늘어나면 소개소나 친구 소개를 통해 다른 업소로 전전하게 된다. 늘어난 빛을 갚기 위해서는(업주의 강요) 티켓을 나가야 하고(시간당 2만-2만5천원), 티켓은 성매매로 이어지게 된다. 단란주점, 노래방등으로 시간을 나가고 성매매까지 해서 돈을 입금시켜야 하는데 업주들은 월말에 계산을 볼 때 선불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한푼도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다시 생활을 위해 선불금을 차용하게 되고 빛이 늘어나면 소개소로 넘기기도 한다.

2.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룸싸롱

선불금이 보통 2000-3000정도 된다. 이곳은 소개소나 친구, 마담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선불금으로는 전 업소에 빛 갚는데 쓰고 일을 위해 다시 옷을 사거나 방을 구입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선불금을 차용하게 된다.

숙소를 이용하더라도 숙소비가 여성 1인당 TC비와 2차(성매매)비용이 여성들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테이블에 나가야 하고 이것은 2차로 이어져야 한다. 만약 2차(성매매)를 거부하면 그 여성이 모든 비용과 술값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거부자체가 불가능하고 성매매는 하지 않고 테이블만 나가는 여성은 고용자체를 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번돈은 한달에 한번씩 계산을 하는데 숙박비(20-30),마담MT비(20-30만원),세금(5%),이자(월5부),세탁비,외상값정리등을 하고 나면 결국 다시 빛에 그대로 놓이게 된다.

3. 성매매집결지

소위 3종,사창가라 불리는 이곳은 유명한 청량리,미아리,동두천,광주 및 부산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있다.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곳에서부터 전쟁이후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곳 등 수십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1,2종으로부터 빛이 늘어난 여성들을 소개소를 통해 3종인 성매매업소집결지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곳은 대부분 2500-4500까지 다양하게 많다.

술을 팔지 않고 업소안에 여성들 방이 있어서 그 방에 모든 장비를 여성들은 빛을 얻어 다 마련해야 하고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과 감시가 심한곳이다. 군산 화재참사이후 쇠창살은 제거 되었다고 하나 밖으로 잠금장치를 해놓고 업주가 나갈때나 여성들이 잠을 잘때는 문을 밖에서 잠근다.

3. 이발소, 안마맛사지,휴게음식업,노래방등

이용원의 경우 내부에서 모든여성들의 숙식을 해결하고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외출도 하지 못하게 한다. 단속에 대비해서 문앞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내부에는 뒤로 빠져나가는 탈출구가 있으며 단속이 나오면 콘돔이나 성매매관련용품을 삼키도록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노래방도우미등

4. 빛문제

·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노예문서 : 선불금

· 불법채무의 형성이유 : 최초 선불금, 소개비, 벌금(결근비/올비 20-30만원, 지각비/5분만 늦어도 1시간의 시간비 2-3만원을 올린다, 미수금, 도망치면 잡으러 다니는데 드는 경비등),방세,숙식비, 옷과 화장품 구입비, 2차 입금비,계약위반시 소개소벌금,맞보증, 이자(보통 5부 이자이고 티켓다방의 경우 이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들은 여기저기를 전전하다 이자가 없는 티켓다방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한다)등

· 차용증의 형태 : 차용증, 현금보관증, 현금보관 각서, 공증서, 보증서등
빛의 액수 및 맞보증인,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

4. 약물중독의

술과 담배등 자신들의 상황을 모면하고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 약물에 노출된다. 임신을 피하기 위해 피임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고 여러 성병에 노출되어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경우 약물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5. 외국인여성의 문제

E-6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강요 / 예: 러시아 무용수,필리핀여성들의 문제
국제적 인신매매의 문제

▶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구조활동의 실제

1. 상담 및 구조요청
2.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파악
3. 안전한 쉼터나 도움을 줄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파악
4.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진술서 작성
5. 본인의 진술서와 상담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피해신고 및 수사의뢰
6. 경찰조사 동행 및 철저한 수사 촉구
7.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인 의견서제출등을 하면서 피해여성에게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전개
8. 업주처벌 및 사후보복금지를 위한 조치
9. 생계지원 및 직업교육을 통한 자활활동 지원
10. 집단상담 및 지속상담을 통해 자기강화 및 탈성매매를 위한 활동

● 성매매와 관련된 국제 조약들

▶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 :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유괴하는자,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950년) /62년 가입

▶ 여성에 대한 모든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협약(CEDAW)

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 4년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서제출 (79년) / 84년가입

▶ 95년 북경여성대회 - 성매매 관련조항에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

▶ 2000년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인신매매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면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단체소개.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한소리회는

매매춘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이며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매춘여성들의 한恨의 목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회는 1986년 매매춘 문제를 고민하는 여러 지역의 쉼터와 개인의 모임으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매매춘 근절과 모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소리회의 주요활동

매춘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사회 복귀 활동/매매춘 연구와 자료 발간/매매춘 근절 여론화/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운동/매매춘 지역에서 일하는 현장단체 지원/정부 정책 전환 촉구 및 대안 제시/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한소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공동대표 · 이옥정, 유영님

사무국 · 김미령

활동가(5명)

한소리회와 함께 힘모으는 단체들

탁달레나의 집, 소나의 집, 정다운 집, 자립지지공동체, 다비타의 집, 두레방, 새움터,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다일 공동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이야기 공동체, 여성문화인권센터, 개인1

후원안내

조흥은행 377-04-302653 한소리 이옥정 / 국민은행 004-01-0597-552 한소리 이옥정

제일은행 325-20-327864 한소리회 / 외환은행 028-19-35734-2 이옥정

우체국 010793-0121270 한소리아옥정 / 농협 386-12-011711 이옥정

지로 7645426(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기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명단

	이름	연락처	주소	E-mail	직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적 어 두 기

성매매 피해여성 사회복귀를 위한 바코보기, 함께걷기
제4기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5층(120-012)

전화3147-1505/전송364-4242

E·mail : hansori1986@hanmail.net

홈페이지 : han-sori.org